던지고 뛰고… 투수조엔 하루 해가 짧다

KIA타이거즈 투수 14명이 킨 구장에서 인근 해변까지 5km의 거리를 뛰며 체력단련을 하고 있다. /오키나와=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여울 기자

TIGERS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우리 어깨가 내년 성적 좌우”
박경태·박정수 등 젊은피 14명
제구력 신장 ‘집중력 캠프’ 열어
투수 왕국 재건 위해 연일 구슬땀

2018 마무리캠프에 KIA 타이거즈 ‘투수 왕국’의 재건이 달렸다.

KIA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무리 캠프에 14명의 투수를 파견했다.

전상현이 U-23 세계선수권 출전 때문에 캠프에 합류하지 못했지만 부상에서 회복한 박지훈이 지난 7일 오키나와로 건너오면서 14명의 투수가 내년 시즌을 위한 워밍업을 하고 있다.

이중 아직 1군 무대를 밟지 못한 선수는 2018 신인인 좌완 백미카엘과 군 복무와 부상으로 공백이 길어졌던 2014시즌 1차 지명 선수인 차명진 두 사람.

올 시즌 신인인 두 좌완 김유신과 하준영은 프로 첫해 1군 무대를 경험했고, 6년 차인 고영창도 결과는 좋지 못했지만 올 시즌 데뷔전을 치렀다.

좌완 박경태는 팔꿈치 수술 후 복귀전에 나섰고, 박정수·박준표도 ‘예비역’으로 다시 KIA 마운드에 섰다. 2016년 13경기에 나왔던 이준영도 전역하고 2019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선발 후보로 언급됐던 홍건희와 이민우에게는 아쉬움이 더 컸던 시즌. 문경찬에게는 성공과 실패가 공존했던 한 해, 입단 4년 만에 1군 선수로 발돋움한 황인준에게는 잊지 못할 시즌이었다.

올 시즌 성적과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KIA가 기대하는 젊은 자원들이다 .

KIA 마운드는 베테랑이 주를 이루는 타선과 비교된다. 최고참 임창용이 빠지면서 내년 시즌에는 1986년생 윤석민이 ‘맏형’이 된다. 그 뒤로 1987년생 김세현, 1988년생인 에이스 양현종이 있다. 1992·1993년생 동기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1991년생인 임기준이 허리 역할을 해야 한다.

마무리캠프에서 기회를 노리는 투수들의 성장은 그만큼 당장 내년 시즌은 물론 KIA 마운드의 먼 미래까지 바꾸는 중요한 과제다. 일단 올 시즌 힘있는 젊은 투수들이 많은 경험을 쌓은 건 고무적이다. 마무리캠프에서는 ‘세밀함’을 입히고 있다.

KIA는 마운드 육성을 위해 새로운 시도도 하고 있다. 이대진, 서재응 두 투수 코치와 강상수 총괄코치 체제로 내년 시즌을 운영한다.

전체적인 틀에서 투수들의 육성 방향과 기용 등에 대한 역할을 맡게 된 강 총괄코치는 ‘집중력 캠프’를 꾸려가고 있다.

일단 내부에서 자세히 들여다본 KIA 선수들에게서 가능성을 봤다는 게 강 총괄코치의 이야기다.

강 총괄코치는 “캠프에 있는 어린 선수 중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생각보다 많다. 잘 채워서 실력을 끌어올려야 할 것 같다. KIA가 어린 투수들이 많으니까 선수들 잘 끌고 가라는 의미로 불러주신 것 같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기량 업그레이드 쪽으로 마무리캠프를 신경 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새로운 제자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에 주목하고 있다.

강 총괄코치는 “단점을 보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어린 친구들이 많으니까 장점을 극대화하는 게 더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단점이 장점에 묻힐 수가 있다. 장점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집중력’이다. 이는 제구력과 직결된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강 총괄코치는 “집중력과 제구력을 강조하고 있다. 같은 맥락이다. 집중력과 제구력은 같이 봐야 한다. 집중력 좋은 선수들이 제구력도 좋은 편이다”며 “연습할 때도 이대진 코치랑 상의해서 바꾼 게 있다. 어떤 코스로 완벽하게 던지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게 했다. 오케이가 나면 넘어가는 것이다. 완벽한 공이 들어와야 하고, 타자 배트가 나올 수 있는 공이어야 한다. 공을 받는 포수가 완벽하다고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하고 있다. 집중하면서 제구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KIA는 그동안 투수 유망주 수집에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성장세 속, 마운드 발전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미래 자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체제를 도입한 KIA가 마운드 반전과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wool@kwangju.co.kr

‘실과 바늘’ 황대인·이창진 “우리는 햄버거 세트 같은 것”

캠프 T 톡톡

▲햄버거 세트에 나오는 감자 같아요 = 실과 바늘처럼 붙어 다니는 내야수 황대인〈사진 왼쪽〉과 이창진. 두 사람은 상무에서 함께 운동했던 옛 동료다. 지난 2016시즌이 끝난 뒤 황대인이 상무에 입단했고, kt 소속이었던 이창진은 1년 앞서 군복무를 시작한 선임이었다. 그리고 지난 6월 이창진이 오준혁과의 트레이드로 KIA 유니폼을 입었고, 황대인이 9월 제대하면서 두 사람은 다시 동료가 됐다. 이번 캠프에서는 나란히 3루 자리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 상무에서의 인연으로 각별한 사이가 된 두 사람. 황대인은 “햄버거 세트에 나오는 감자 같은 존재”라고 설명했다.

▲군대 다시 가고 싶었어요 = 투수 이민우에게는 ‘군대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아쉬움 가득한 2018시즌이었다. 이민우는 지난 2017년 프로 첫 데뷔 무대에서 선발승을 거두며 ‘깜짝 선발’로 주목받았던 선수다. 이민우는 2017시즌의 활약을 바탕으로 올 시즌도 선발 자원으로 시작했지만, 초반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여름 내내 2군에 머물렀다. 이민우는 올 시즌을 돌아보면서 “준비했던 대로 너무 안 돼서 군대 다시 가고 싶을 정도였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제가 말을 못해서 = 오는 19일 2018시즌의 최고의 선수와 최고의 신인을 가리는 KBO 시상식이 열린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018 KBO 리그와 퓨처스리그의 투수 및 타자 부문별 1위 선수에 대한 시상도 이뤄진다. KIA에서는 퓨처스리그에서 두 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경찰청에서 올 시즌을 보냈던 박준표가 북부리그 평균자책점(2.37)과 다승 1위(12승)등 2관왕에 올랐고, 전상현 역시 상무 소속으로 남부리그에서 평균자책점(3.06)과 다승 1위(13승)를 기록했다. 박준표는 마무리캠프를 치르느라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지만 “오히려 잘 됐다. 말을 못 해서 시상식 걱정했었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어 ‘시상식 선배’ 박정수의 이야기에 박준표의 표정이 밝아졌다. 경찰청 소속이던 지난 2016시즌 남부리그 다승왕으로 시상대에 올랐던 박정수는 “KBO 리그에서 주는 상금 100만원과 구단 포상금까지 받았다”고 설명했고, 박준표는 “축하한다. 밥 사라”는 동료들의 축하 인사를 받았다.

女 유도 국가대표 김성연, 광주서 꿈나무 지도

대한민국 여자 유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는 김성연(27·광주도시철도공사)이 유도 꿈나무들을 지도해 화제다.

김성연은 지난 14일 광주 서구 화정동 염주체육관 내 국민생활관에서 광주시유도회 주관으로 지역 유도 꿈나무들을 위한 재능기부를 펼쳤다.

김성연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그리고 2016년 파리 그랜드슬램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이름을 알렸고 최근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대한민국 유도 국가대표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선수다. 이 자리에서 김성연은 꿈나무 선수들에게 자신의 성장 경험과 기술 및 시합 노하우를 알려주는 등 올바른 유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김진수 기자 jeans@

안타 칠 선수 족집게 야구팬에 5천만원

스포츠투아이 ‘비더레전드’ 50콤보 달성자 시상

KBO리그 공식 기록업체 스포츠투아이가 주관하는 프로야구 2018시즌 ‘비더레전드’ 50콤보 달성자 시상식이 1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투아이센터에서 열렸다.

스포츠투아이는 올해 50콤보 달성 주인공인 사용자 아이디 ‘물침대’에게 상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물침대’는 지난 6월 16일 대망의 50콤보를 달성해 지난 2014년 비더레전드 시행 첫해 37명의 당첨자를 배출한 이래 4년 만에 수상자 계보를 이었다.

비더레전드는 KBO리그 경기가 있는 날 한 명의 선수를 선택해 그 선수가 해당 경기에서 안타를 치면 1콤보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50경기 연속으로 성공해 50콤보를 달성하면 최대 5000만 원의 상금을 받는다.

‘물침대’가 50콤보를 달성하는 동안 가장 많이 선택한 선수인 롯데 자이언츠 손아섭은 육성으로 전한 축하 인사에서 “정말 축하드린다”며 “그 와중에 저를 제일 많이 선택해주셨다니 보는 눈이 확실히 있으신 것 같다”고 입담을 뽐냈다.

‘물침대’는 모두 8회에 걸쳐 손아섭을 선택했고, 손아섭은 그때마다 안타를 쳤다. /연합뉴스